

## News

### 체면 구긴 금감원, '편면적 구속력' 칼 뺐다

머니투데이

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'편면적 구속력'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 
증권사 관계자, "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는 앞으로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안 하게 될 거고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공급은 더 줄어들 것"

### 상환 늦춰준 대출 36兆 '시한폭탄' 되나

파이낸셜뉴스

5대 은행 대출 원리금 유예건수 약 24만5,000건 ...정부 유예조치 6개월 재연장 계획...유예기간 연장될수록 채무자 부담 가중  
건전성 지표 왜곡, 잘못된 투자정보 제시 가능성...대출 원리금 유예 더불어 LCR 규제 완화도 재연장 전망

### 與 '이자제한법' 추진에...정부 '빈곤층 차입 막힐 것' 우려

한국경제

여권이 추진 중인 연 10% 이자제한법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무수한 뒷말...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"의도는 이해하지만 내용은 틀렸다"는 입장  
선부른 이자율 제한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게 중론...저축은행·캐피탈·대부업 등 2금융권은 "영업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소리"라며 강하게 반발

### 영끌해서 집 사자...주택 패닉바이에 은행 신용대출 폭증

데일리안

4대 은행들이 보유한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총 100조9,71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.4%(2조3,720억원) 늘어난 것으로 집계  
한은 관계자, "부동산 대책 전후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증가...통상적으로 주택거래 차주들은 일반적인 신용대출 차주에 비해 우량차주 비중이 높는데, 이런 우량차주의 비중이 늘

### '월급의 8%, 건보료 상한' 44년만에 폐지

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%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...1977년 마련한 장치...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 것  
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..."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적자 규모가 늘어났고 코로나 치료·검사비와 상병수당 도입 등으로 지출 요인이 커지고 있

### 금융당국, 가계대출 고삐...보험사 RBC 위험계수 상향 조정

뉴데일리

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RBC제도 개정 적용을 통해 기존 4.5%였던 보험사 소매대출 위험계수는 6%로 상향...10억원 이하인 소매대출 위험계수가 상향 조정된 것  
관계자, "금융당국이 리스크가 큰 개인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높였다...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개인대출을 축소하고,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"

### '온실가스 배출권' 이젠 증권사도 거래한다

뉴스1

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증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어... 배출권이 무상할당되는 업종은 기존의 36개에서 29개로 축소...  
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...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

### HDC현산·금호산업, CEO 대면협상 방식 놓고도 '기싸움'

연합뉴스

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에 나선 현산은 현재 양사 CEO 간 대면 협상을 위한 실무진 협의를 진행...협상 장소와 시간은 물론 배석자 범위, 논의 방식과 내용까지도 2  
금호산업은 현산이 대면 협상을 수락하자 "12일 이후 실제 계약해제 통지 여부는 양사 CEO 간 미팅 등 협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"이라고 밝혀 당장 계약종료에 나서지는 않을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